

데스크 시각



최재호 사회부장

최근 한국 사회엔 두 가지 뜨거운 열풍이 지나갔다. 하나는 영화 '명량'이다. 1597년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명량 대첩'. 이를 영화화한 명량은 작품성이나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 한국 영화 사상 첫 관객 17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강도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500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이 영화를 본 셈이다.

또 하나의 열풍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약한 이들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교황의 성스러운 온기는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안아 주었고, 정신적 힐링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종교를 떠나 교황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사회를 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두 가지 열풍의 근간에는 '참어른' '진정한 리더'를 갈망하는 한국 사회

영화 '명량'과 교황의 방한이 남긴 것

이순신의 위기관리 리더십

그동안 군림하는 사회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헌신과 배려로 감싸안는, 울려 보는 리더가 아닌 끌어 주는 리더의 모습을 갈망했다. 따라서 독선과 불통은 온몸으로 거부하며 뜨겁고도 절실한 목소리를 들려 준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순신 장군에게 그토록 열광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빈틈없는 자세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헤쳐 나갔다. 그가 보여 준 여러 가지 리더십 가운데 '위기관리 리더십'은 예나 지금이나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나타내는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가 높은 리더가 요청되고 있다. 바로 그 역경

지수가 그 누구보다 높은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적과의 싸움에 있어 항상 선봉에 섰으며 전쟁이 끝나면 부하의 공을 앞세웠다. 전쟁에서 희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부하들과 활쏘기 연습도 같이 하고 글을 가르쳤는가 하면 술도 같이 하며 위로했다.

죽은 부하들이 있으면 그들의 사체를 거두어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해 주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쌀을 보내 주기도 했다. 임금에게 승전보고서를 올릴 때는 부하의 공을 앞세웠으며 심지어 종들의 이름까지도 적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 부하들은 마음속 깊이 존경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가 보여 준 겸양과 포용, '남부·농부·종들로 이뤄진 수군을 무적함대로 만드는 초석'이 됐다.

불통의 시대와 공감 소통법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어떤가. 방한 4박5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의 그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 했다. 대통령도 외면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어느 종교 지도자들도 보여 주지 못했던 희망을 선사했다. 그의 방한으로 한국 사회의 가난한 이들, 그동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목소리를 빼앗

겼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황이 전한 수많은 메시지와는 별개로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과 진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잊어 버렸던 것, 그토록 찾았지만 보지 못했던 그 어떤 모습, 또 그렇게 담고 싶었던 그 얼굴에 매료됐다.

교황은 '불통의 시대'에 '공감'이라는 소통법을 제시했다. 4박5일 동안 그가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했다. 권위는 벗어 내리고 상대를 배려하며 하인 중의 하인으로 스스로를 낮춘 교황의 소통법은 자국의 한국 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순신 장군은 영화에서 "장수 된 자의 이름은 충(忠)을 좇아야 하고 좋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치인으로서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애국혼'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들먹이면서도 상대방을 적으로 여겨 대화를 외면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 영화 명량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렵게 한국 사회에 온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순신 장군을 이대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과 국가 경영자들은 필히 두 분의 리더십을 배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lion@kwangju.co.kr

은편칼럼



임명재 약사

세월호특별법의 돌파구를 제안한다

안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신원들은 세월호 책임의 정점에는 유병언이 있고 그를 단죄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으나, 그가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주검으로 발견됨으로써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죽어 마땅할 유병언이 실제 번사체로 발견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지목당하게 생긴 것이다. 자칫 그 대상이 박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국회의원회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에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박대통령을 보호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형편없음이 드러나고, 관련된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에 당연히 야당은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했었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전략이 없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평범한 정치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얼굴이 나 알리려는 목적으로 대처한 것에 책임이

크다. 과거 청문회처럼 실체를 밝히려는 최소한의 한두 명의 열정적인 정치인이 있었다면 국민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국정감사나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그 목적이 오직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야 함에도, 마치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일체의 타협을 하지 말아야 했다.

셋째, 국민이 희생자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지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경기가 나쁜 것이 결코 세월호 때문만은 아니다. 갈수록 포화되어가는 시장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국가예산이 4대강에 엉뚱하게 사용된 것 때문이지 결코 세월호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유족들과 국민의 외침은 간단하다. 명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조사와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중립적이고

의지가 있는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조사와 기소에 대한 대상자를 국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가 그처럼 운영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장으로 제한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몇 년 후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지지만 잘못된 시스템은 거의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협상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야당은 다시 한 번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족들은 자녀와 가족의 역할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친구와 이웃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밀려들기 됐다든 점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세월호 특별법의 완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김은수 전 광주대학교 교수

벌초와 까까머리

올해는 일찍부터 벌초 날짜를 여수고 있었다. 다행히 시간도 나는 날이었다. 기다리던 토요일, 또 두 형제가 나선다니, 내가 예초기를 짊어질 형편은 아니지만 갈퀴질이라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시락이나 준비할 생각이었다. 아내는 돼지고기보쌈과 족발을 주문한다고 했다. 그 말을 했더니, 조카들이 항상 김밥과 간식거리를 준비하곤 하니, 아예 내려올 생각도 말라고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일을 핑계 삼아 고향에도 한번 발걸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카들은 시원한 시간도 하기 위해 새벽에 출발한다고 했다. 멀지않은 거리지만 그래도 세 군데 다섯 봉을 깎으려면, 하루 종일의 일감이다. 점심을 주문해 놓은 식당이 열 시에 문을 연다고 하니, 나는 서둘러도 그 시간엔나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고향마을까지는 한 시간 남짓의 거리, 다시 산소까지는 20여 분, 하지만 다행히 점심때까지는 도착할 수가 있었다.

먼저 아버지 산소에 갔더니, 말꼬히 벌초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산소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산모퉁이를 돌아 잡초에 묻힌 길을 더듬어 가보니, 조카들은 할아버지 산소에 있었다. 벌초를 해놓은 묘는 마음이 개운해질 정도로 깔끔했다. 그것은 옛날 바리캥이

발을 한 어린애들의 두상 같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이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까까머리를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기까지 남녀 간에 덩끼머리를 해왔다. 까까머리는 일제 때부터 생겼던 모양이다.

우스꽝스런 까까머리,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더러는 멋있을 때도 있었다. 특히 추석에 그랬다. 어른들은 장터 이발소에서 이발을 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대충 해주었다. 절약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시절이다. 마을에는 몇 집이 어울려 바리캥을 하나씩 갖추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큰 집에 있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날을 잡아 아이들이 큰집에 모여 한끼만에 이발을 했다. 날씨가 추운 설에는 사랑방 같은 데서 했지만, 추석에는 시원한 김나무 아래 평상 같은 데서 쭈그러 앉아 했다. 특히 추석에 이발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4촌, 더러는 6촌까지 합하면 아이들은 열 명이 넘기도 했다. 우리 집안 어른이 '바리캥'을 잡았는데, 우리 집안은 당숙이 바리캥을 맡았다. '한 손잡이 바리캥'이 없을 때였다. 빨간 나무자루가 달린 커다란 '두손잡이 바리캥', 그것은 어린 꼬맹이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날이 무더워서 머리털을 집 아예 뜯었기 때문이다.

꼬맹이들 눈물을 쫓 빼는 행사였다. 큰 애들은 참아내야만 했다. 그렇지한 자신도 모르게 '아야'하는 괴성을 지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당숙은 호통을 쳤다. 아픈다는 것을 당숙이 모를 까닭이 없지만, 옆에서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꼬맹이들에게 들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러 도망가는 놈도 있었지만, 형들은 또한 그들을 잡아와야 했다. 여축도 없고 용서도 없는 일이었다.

명절을 쇠면서 가장 힘든 통과의례였지만, 아름다운 정경이었다. 잡초 같은 머리털을 깎고, 때에 찌든 머리를 씻고 나면 머리통은 반질반질 윤이 났다. 그건 흡사 벌초를 하고 동실하게 솟아오른 산소의 모습과 같았다. 여남은 명의 아이들이 바리캥을 하고 차근차근 해맑은 까까머리로 가지런히 늘어서는 것은, 벌초를 한 선영들의 모퉁이 다시 하나하나 동실동실 솟아오르는 모습이었다. 못생긴 두상은 하나도 없었다.

머리를 깎고 나면, 인내를 참았다는 선물로 단맛이 든 단감이 하나씩 안기기도 했다. 아마 그때 당숙은 훗날 다시 선영들이 될 뿔뿔뿔방한 어린애들의 둥근 두상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훗날 선영이 될 아이들 숫자는 줄어가고, 그런 정겨운 추석의 모습도 사라져버렸다.

社說

박근혜 정부서 더 심해진 지역 '예산 홀대'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예산 반영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만 해도 90%를 웃돌던 반영률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50%대까지 곤두박질해 '호날 홀대'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141건, 3조2617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 각 부처 예산에 포함된 것은 100여 건에 2조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 67.4%만 반영된 것이다. 전남도는 499건, 8조2492억 원을 건의했는데 반영률은 57.3%(4조7269억 원)에 그쳤다.

광주·전남 국고 지원 비율은 이명박 정부 이후 매년 하락세다. 2009년도 예산의 경우 광주시는 요청액 대비 최종 확보율이 99%였지만 2011년 90%, 2012년 78%, 2014년 69%로 해마다 하락했다. 전남도 역시 2009년도엔 92%에 달했으나 2012년 82%, 2014년 58%

로 급락했다. 반면 강원은 올 예산 기준 신청액보다 많은 112%가 최종 반영됐고 경남 99%, 전북 90%, 대구 88%, 제주 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예산 반영률이 50%대까지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같은 하락세는 현 정부 들어 가속화하는 추세여서 내년 국비 확보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비 반영률 하락의 배경에는 인구 및 기반시설 위주의 예산 배정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방 소외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인사 홀대로 정부 내 호남 인맥이 끊기는데다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은 그만큼 국비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때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3~4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잇따라 찾아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예산 폭탄'을 약속한 새누리당과 지역 정치권의 총력 지원을 촉구한다.

추석인데도 사회복지시설 썰렁하다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즐겁기보다 오히려 상심감이 더 크다고 한다.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기부자들의 후원이 크게 줄면서 어느 해보다 쓸쓸한 한가위를 맞게 된 것이다.

과거 명절 때면 웅만한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독지가의 후원금이나 물품 기부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 추석에는 온정의 손길을 찾기 어렵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동보육시설인 광주 A보육원은 현재까지 개인 후원금은 아예 없으며,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보내준 라면·과일 등이 전부라고 한다.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노인보호시설인 광주 B요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에 기탁하는 지정후원 물품도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지난해 추석엔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왔지만 올 추석엔 현재까지 600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

구 2300만 원, 북구는 1850만 원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해가 거듭 될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불우이웃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절이면 불우한 이웃은 온정이 그림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아쉽다. 각종 기금과 기업체, 사회단체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개인·가족의 작은 기부와 정성 또한 소중하다. 행복은 나눔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눔수록 작아진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그만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더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온정의 불씨가 살려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히브리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대학자 히에로니무스(345년~419년 경)는 초기 그리스도교 4대 교부(敎父)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미술사가 '광야에서 수행하는' 그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 만큼 '고행'으로도 이름이 높다.

20대 후반 시리아의 카르키스 사막에서 홀로 수행할 때, 헛된 생각을 떨치기 위해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돌로 자신의 가슴을 피가 날 때까지 내리쳤다. 그런 히에로니무스에게도 마음을 다스릴 것은 결코 쉬운 일

수행자

수많은 성인·현자들의 편지나 일기에도 내밀한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있다. 우리 속인들로서는 '아, 결국 모두가 보낸 편지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번민이 드러나 있다. 그녀는 평생 동정(童貞)으로 지내며 히에로니무스를 영적인 스승으로 섬겼던 여성이다.'

'사막에서 사는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얼마나 자주 로마의 향락 속에서 소란스럽게 먹고 마시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지요. (총략)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활로 뛰어어들었으면서도 춤추는 소녀들 사이에 에워싸인 내 모습을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내 얼굴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